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buddhapia.com



제2의 '여시아문' 을 기대하며

지난해부터 불교계를 비롯해 일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불서들의 증가가 뚜렷해졌다. 불교출판 업계에 따르면 평년의 두 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불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불서들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이를 비치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IMF 관리체제 이후 계속된 불황 여파로 불교출판 시장이 위축된 데다 조계타운 인근의 영풍문고, 교보문고의 불서코너마저 기독교 코너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축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불교전문서점도 서울 성신여대 인근의 영풍문고, 교보문고의 불서코너를 제외하고는 대형서점이 전무해 불서 유통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현실이다.

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0월말 퇴임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회향하는 중요한 불사에, 총무원이 조계사 건너에 위치한 템플스테이센터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에 불교서점을 개설, 향후 공간을 넓혀가며 불교계 최대의 전문서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총무원에서 예산 및 설계 등을 기획 중이라 서점 오픈까지는 시간이 충분치 않겠지만, 이왕 직업 서점을 개설할 바에니 불교출판문화협회의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컨설팅을 거쳐 불교계에서 자랑할 만한 '제2의 여시아문'으로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조계사터의 명물이었던 책방 여시아문이 국내외 최신 불서를 구비하는 물론 스님과 불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책까지 구해서 판매하는 도서관 역할까지 했듯이, 총무원 직업서점도 불자들이 아끼는 명소를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기독교계의 선교 전략을 보더라도 교학력 사회에서 독자층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문서포교가 절대적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조계종도 직업 서점 개설을 계기로 '불서 읽기' 붐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소중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淨)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은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종책

대승교화종단인 태고종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종단통합을 통해 태고종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 총무원장은 누가 될 것인가. 9월 22일 태고종 제 2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을 마친 스님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고종은 9월 7일 서울 시간동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임시중앙총회를 열고 오는 9월 22일 제24대 총무원장 선거를 개최할 것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후보는 전 중앙총회의장 인공 스님과 전 중앙총회부위원장 대은 스님, 보수승가회 회장 도산 스님, 금문사 주지 지허 스님 등 4명이다. 아래는 각 후보의 출마의 변과 종책 및 비전 등이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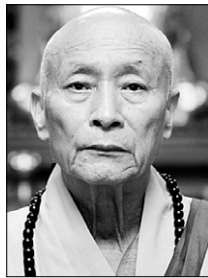
■ 인공 스님

“종단 안정·도약 발판 마련”

인공 스님은 “우리는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종단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종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인공 스님은 출마에 앞서 △전통 수행종단 정체성 확립 △종단 화합 및 단일공동체 실현 △우수 인재 육성과 사회적 영예 확대 등 3대 지표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과제는 △종무조사 실시 △신촌 봉원사 문제 등 종단부채상환 △종단제도개혁위원회를 통한 종단제도개혁 △각 사찰 특성화 및 활용 방안 수립 △사회교과와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특히 인공 스님은 종단제도개혁에 대해 △승려 득도 및 종단교육제도 △종단 및 사찰 재산관리제도 △종단기구 및 인사 제도 △각종 분담금 징수제도 △집행자 독주 및 전횡을 막는 제도 △종단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도 등을 통해 집행부 전횡 방지 및 종단재산권 보호에 나설 것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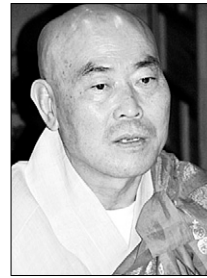
■ 대은 스님

“복지종단 구현에 매진”

대은 스님은 출마선언으로 “원용선임을 바탕으로 종단 화합과 안정을 이루고 전통·문화·복지종단 구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은 스님은 5대 총회기조와 10대 실천방향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5대 총회기조는 △종단 정체성 확립 △총무원정체성 개선 △종단재정 투명성향 △선도적 종도교육과 육성 △문화복지 실현 기반조성 등이다. 이어 스님은 10대 실천방향으로 △종현종범 계승 및 재정립을 통한 전통종단 위상 강화 △종단사 재정립을 통한 종단 정체성 확립 △종단 전통의제 및 의식 제정과 통일안 마련 △총무원 권한 지방교구총무원 양으로 지방분권화 △삼보정재 관리 총무원정 개선 △사실사담 자주권 보장 및 종찰 재산 투명공개 및 인사 △법제제도 개선과 승적확립 통한 위계질서 조성 △행자기분교육 등 교육제도 개선 △승려 노후 수행 보장을 위한 재정확보 △전법사지위강화 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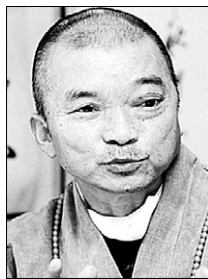


■ 지허 스님

“전통선원 및 강원 개설”

지허 스님은 “1600년 전통 불교의 실체인 태고종의 연륜이 어느덧 40년이 흘러 새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놓였다”며 “불교쇄신해 종단의 청정가풍이 만대에 전하도록 정진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6대 종단운영원칙을 제시했다.

6대 종단운영원칙은 △선교양종 이념 정립을 통한 교체 확립-전통문화기후 조성, 종단 지역 전통강원 및 선원 5개소 개설 △교육권 독립을 통한 수행풍토 조성-총무원 산하 중앙교육원, 권역별 각 지역교육원 및 교육기관 신설 △경역 자문 통한 종단 재정 독립-종단 부채 책임상환, 유지재단 법인 활용한 영리사업 추진 △원칙과 배려를 통한 승단 화합-광역시 고등 사정기관 신설, 지방총무원 전신화 지원, 정기 종도토론회 개최 △현대사회를 향도하는 승려상의 정립-대중적 도심포교 제도 마련 △신도회, 청년회 등의 운영지원, 전법사와 교인 등의 제신설과 의식 통일 등이다.



■ 도산 스님

“종단 화합에 주춧돌 될 것”

도산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청산하고 또 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생사를 초월한 결단과 행동으로 화합과 안정을 이루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도산 스님은 6대 종단운영방안 그에 따른 세부 실천사항을 발표했다.

도산 스님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종단운영-종도 참여 심판제도 등 마련 △민주적 종관 창출-종도직선제 도입 등 총무원장 선거법 및 각급 선거법 개정 △전문 경영 도입을 통한 재정지립-경영 전문가 초안체제 및 중앙총회 감사 제도와 △종현종범 확립으로 자의적 관습 타파-처벌조항 종법통합, 제재조항 조례화, 개인 사찰 재산권 보장 종법화 △투명하고 합리적인 총무원정 운영-직영사찰 주지 순환임명, 종단운영 재무재표 공개 △종도 참여제도 활성화-종책 세미나, 지방총무원 토론회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출마선언-종하 스님

“낮은 자세로 종단 장엄하겠다” 3대 비전과 7대 운영기조 밝혀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 스님(사진)이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후보로 첫 출마표를 던졌다.

종하 스님은 9월 7일 주석처인 서울 관음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과 향후 선거 운동 일정을 공개했다.

종하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낮은 자세로 종단을 아름답고 멋있게 장엄하겠다”며 “종단 일선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각계의 많은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종하 스님은 “선거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이 서 입장을 밝히게 됐다”며 “각 유력후보 들은 할 마음이 있으면 출마의사를 표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비전과 철학, 그리고 도덕성과 청정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하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교와 역사를 책임지는 조계종”의 3대비전과 ‘종단발전의 초석’이라는 7대 운영기조를 공개했다.

3대 비전으로는 △발로잡회를 통한 대화합으로 거듭나는 청정한 조계종이 되자 △종단 운영의 투명화로 유·무형 삼보정재의 가치를 높이자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정진하며 역사를 일구는 한국불교가 되자 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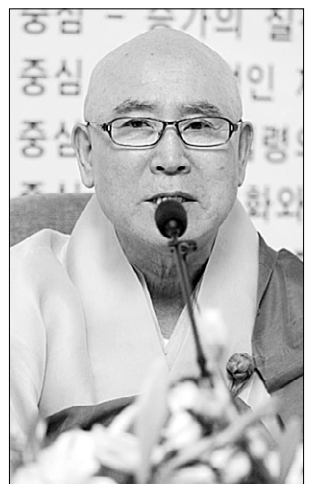
7대 종단운영 기조로는 △사부대중 중심- 젊은 사교와 열린 대화의 민주적 원장 △인재양성 중심- 승가의 질적·양적 발전 △제도개선 중심-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백년대계 설계 △종단위상 중심- 관련 법령 정비로 종단 위상 제고 △인류평화 중심- 인류평화와 통일한국 초석 마련 △재가불자 중심- 총무원과 재가활동가 적극 지원 △우선사업 중심- 종단 당면문제 우선해결 등을 제시했으며, 10월 12일 선거대책본부 발족을 겸해 50대 핵심종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종하 스님은 출마의 변을 밝히고 6대 종단운영원칙을 제시했다.

1967년 범어사 강원 졸업 후 통도사, 봉암사, 범어사 등 선원에서 6하안거를 성만했고, 1973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1972년부터 제 4-12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1977-83년 조계종 총무부장, 1985년 조계종 부위원장, 1987년과 1992년 조계종 제9·10대 중앙총회의장 등을 지냈다.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부의장, 불교방송 이사장도 역임한 스님은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의 원로의원이다.



적 수행 차원에서 사회를 이끄는 불교 운동인 ‘불교 소프트파워 운동’을 전개할 것도 밝혔다.

종하 스님은 “금권 및 파벌로 인한 분열 선거를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종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능력과 위상 등에서 훌륭한 분이 후보로 나선다면 사회화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종하 스님은 후보자 검증을 위해 9-10월 중 후보자 검증 공동 기자회견과 2회 이상의 후보자간 토론회 개최도 제안했다.

한편, 종하 스님은 1938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해 1958년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1959년 고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7년 범어사 강원 졸업 후 통도사, 봉암사, 범어사 등 선원에서 6하안거를 성만했고, 1973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1972년부터 제 4-12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1977-83년 조계종 총무부장, 1985년 조계종 부위원장, 1987년과 1992년 조계종 제9·10대 중앙총회의장 등을 지냈다.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부의장, 불교방송 이사장도 역임한 스님은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의 원로의원이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이력 등은 부디뉴스(www.buddhanews.com) 참조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르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법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계승·선화의 집대성
▶ 신행요전(법어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 (한글/영어)

초판
22쇄의
스튜디오
셀러!!

삶은
꿈가
아니다

삶은
꿈가
아니다

10,000원
A5 / 287쪽